

# 크로즈업



‘겨울바람이 몹시 차갑다. 코트 깃을 잔뜩 올려 세우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겨울나그네들.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고 싶어진다. 커피잔은 조금 넉넉하면서 세련된 것이면 좋겠다. 초코케이크 한 쪽을 곁들이는 것도 좋으리라.’

겨울에는 누구나 따뜻하고 달콤한 휴식을 원하기 마련이다. 서울교대 정문앞에 있는 케익하우스 노엘(대표 오미란)은 그런 휴식을 원하는 멋쟁이들이 즐겨찾는 곳이다.

노엘의 계단옆에 자리잡은 포인세티아 화분이 겨울나그네들을 반갑게 맞아준다. 안으로 들어서면 오븐에서 방금 나온 길다란 바케트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빵 냄새가 정말 좋다.

한껏 모양을 낸 케이크들이 저마다 멋을 내고 앉아있는 쇼케이스 앞을 지나 창가 테이블에 앉는다.

케익하우스 노엘은 편안한 의자때문에 더욱 인기가 높다. 주인 내외가 중림동 가구시장에서 심사숙고해서 고른 바로크

풍 고급의자들인데, 값은 비싸게 주었지만 노엘만의 품격을 유지하는데 한 몫 단히 하고 있는 것이다. 손님들은 의자가 편안해서 좋다고 이구동성이다.

노엘의 공간은 결코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밝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아마도 노엘의 색채감각 때문인듯 하다.

벽면과 천정은 도배없이 흰색 수성페인트로 처리했는데, 거칠은 콘크리트 질감이 그대로 묻어나면서도 깨끗한 느낌을 주는 것이 정말 이채롭다.

하얀색 다음으로 눈에 띄는 색은 노란색. S자형으로 천정에 매달린 돔 구조물이 샛노란색이고 고급살롱을 연상케 하는 단체석 소파가 노란색, 전체적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천정보다 1m정도 낮게 설치된 돔 구조물은 전체 매장의 도시적 감각을 살려주고 있다. 천정에 이런저런 장식을 하는 것 보다 비용이 적게 드니까 경제적이기도 하다.

전체 테이블가운데 몇개는 장미목 세

## 재즈가 흐르는 제과점 케익하우스 노엘

서초동 교대입구







트. 장미목에서 우러나오는 붉은빛이 전체적으로 온화한 공간에서 '파격적인' 액센트 역할을 하고있다.

노엘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꽃이다.

테이블 위에는 양란이 있고, 테이블 중간 중간에는 바젤리아, 국화화분이 있어 마치 화원을 연상케 한다. 단체석과 일반 테이블 사이에 놓여있는 야자수화분과 은행단풍나무도 빼놓을 수 없는 인테리어 소품이다.

놀라운 것은 전문 디자이너의 작품인 듯한 노엘의 공간연출이 99% 주인 부부의 솜씨라는 점이다. 남편이 현업 사진작

가이며, 부인이 세계 각국을 돌며 시장조사를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도시적 세련미와 자연미를 조화시킨 공간연출 솜씨가 아마추어 이상이다.

아무튼 노엘의 편안하고 세련된 분위기 때문에 산유화 꽃물을 고아서 만든 물로 쥬스를 만들어내는 정성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땅거미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토요일 오후. 가슴깊이 파고드는 재즈의 선율과 바젤리아 꽃향기속에 문혀 대화를 나누는 중년부부의 모습이 더없이 아름답게 보인다.

